

도내 지역인재 채용기회 확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채용일정·채용계획 등 안내

도내 지역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2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컨벤션센터 지하 2층)에서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6개를 포함해 지역기관 3개, 공공기관 지역본부 4개, 유관기관 3개, 도내대학 7개 등 총 23개 기관과 1,000여 명의 지역인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는 취업준비생과 학생들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공식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했다.

합동채용설명회 분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지역인재를 위한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북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로부터 2024년 채용계획 안내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2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채용정보 부스를 돌며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지역인재로 취업한 5개 공공기관 선배들이 참여해 취업성공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공공기관 취업 필수시험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강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사부서 면접관이 직접 참여한 모의면접 컨설팅을 통해 참여한 학생들에게 직무능력 향상과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었다. 부대행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까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인전공사 등 6개 이전공공기관과 전북개발공사,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3개 지역기관과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4개 지역본부 인사부서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관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기관홍보와 개인별 맞춤형 자문상담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면접시 맞춤형 메이크업 및 복장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젊은 세대에 달렸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전북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청년들이 도전하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전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중국 관광객 사로 잡는다'

도, 칭다오 'K-관광로드쇼' 참가 전북관광 알러

전북특별자치도가 중국 산둥성 현지에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올해 1월 중국인 방한객 수는 2019년 대비 71% 회복한 28만명으로 국내 방한 관광객 수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방한관광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는 중국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행사인 칭다오 K-관광로드쇼에 참가해 전북관광을 알렸다.

도는 로드쇼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홍보관을 운영해 유일한 국제 할로이자, 작년 8월 여객 운송을 재개한 석도국제공항을 홍보하고, 상담회를 통해 석도해리 연계 청소년 교류, 친선 교류단체 등 특수목적 단체 유치를 적극 나섰었다.

또한 산둥성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엔터테인먼트·여유국을 찾아 전북-산둥성 간 관광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도는 개별여행 및 체험형

관광 등 중국인 최신 해외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스포츠, 뷰티, 로컬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사 및 전북지사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6월에는 도-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중국 현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설명회 및 소비자행사를 개최해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을 전북으로 끌어들이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특수목적관광(STT) 유치 마케팅의 성과로, 중국 초·중등 학생단 5,000명이 7~8월 여름방학을 맞아 석도해리를 탐승해 전북을 찾게 된다.

이남섭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작년 중국 단체관광 전면 재개 및 중국 관광시장 회복 흐름에 따라 우리 도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며, "올해 중국여행사 및 교류단체와 협력해 특수목적 단체 뿐만 아니라 개별 여행객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자립준비청년 위해 촘촘한 지원 나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협의체 첫 개최... 올해 4가지 중점과제, 26개 사업 176억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자립지원사업에 대해 자문과 협력을 구하기 위해 27일, 도청 2층 세미나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협의체를 개최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협의체는 도내 청년들의 자립준비를 돕기 위해 작년 12월 22일 의회, 시·군, 학계, 변호사, 자립준비청년 등 9명 위원으로 최초 구성됐다.

이날 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된 자리에서 자립지원사업에 대한 자문과 협력방안, 자립정착금 지원 관리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으며, 자립정착금 관리 방안으로는 사전 필수교육, 법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법률지원, 자립정착금 수령 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논의됐다.

김동화 도의회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져 조례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광혁 전주대학

교 교수는 "보호이동부터 촘촘히 자립역량을 키워주고 있는 전북 정책에 대해 든든하다"고 했으며, 회의에 참가한 자립준비청년은 "마음껏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에 '따뜻한 동행'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가능성과 꿈을 실현하는 '전복'이라는 비전으로 △보호이동 자립역량 지원 △자립준비청년 생활안정 지원 △자립준비청년 정서·의료 지원 △다양한 의견수렴

및 지원체계 확충 등 4가지 중점과제로 총 26개 사업에 17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자립정착금 필수 경제교육, 자립준비청년 생필품 지원, 생애 첫 건강검진 지원,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지원기관 지정, 자립준비청년 살때조사 등이 포함된다.

김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전국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잠깐 반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해 협의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공공기관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사업 기관 모집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5일부터 2024년 공공기관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사업 기관 10곳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지정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공공영역에서의 성차별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북지역의 공공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3년째 진행되는 이 사업은 법정무교육과 함께 성희롱예방에 필수적인 조직문화 개선방법에 대한 내용과 활동이 포함돼 있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사업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성차별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도, 봄맞이 해양정화활동 본격 추진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13개 사업에 70억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양영토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봄맞이 해양정화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해양폐기물 관련 수거·처리 13개 사업에 70억원을 투입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기관 지정, 자립준비청년 살때조사 등이 포함된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국민의 해양폐기물 인식 제고와 민간·단체 등 해양정화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홍보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85억원을 투입해 총 1만4,864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처리했고, 지난해에는 4,474톤을 처리했다. /김재훈 기자

해 직원들을 조직단위(실국원별)로 특정 해안 및 해안가를 지정해 책임감 있는 해양 보호 활동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안해역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양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모니터링과 해양폐기물의 수거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17톤 규모의 하이브리드 추진기관을 탑재한 친환경 정화운반선(전복 901호)을 운영한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국민의 해양폐기물 인식 제고와 민간·단체 등 해양정화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홍보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85억원을 투입해 총 1만4,864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처리했고, 지난해에는 4,474톤을 처리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공고 제2024-71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입안 열람공고

「군산시 해안동1구역 도시계획생활화계획」, 지정사항 중 혁신성장센터 조성사업 부지로 활용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입안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사항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안"
- 열람기간 : 공고 개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el.063-454-3505, Fax.063-452-8171)
- 입안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소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36	주차장	해당동1000-9번지	4,511	간) 4,511	-	'04.12)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6	주차장	주차장 폐지 -면적 : 4,511㎡	「군산시 해안동1구역 도시계획생활화계획」, 지정사항 중 혁신성장센터 조성사업 부지로 활용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5. 도시관리계획 입안도서 : 실용생략(열람장소 비치)

2024년 3월 27일 군산 시청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